

조선후기 백자 제작의 새로운 경향

박혜선, 305호 분청사기-백자실, 18: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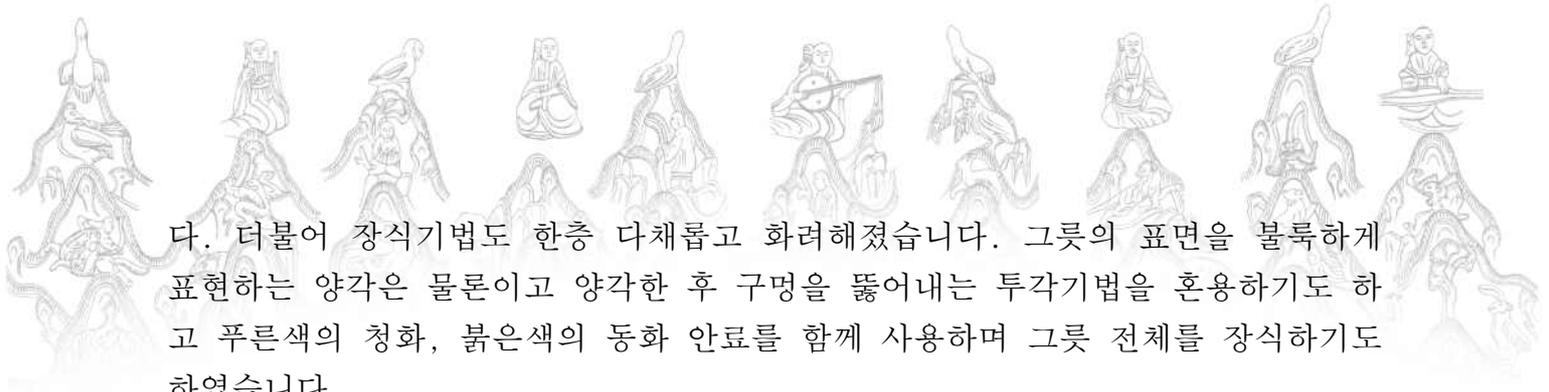
조선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전과는 다른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자 제작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후기 백자 제작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화백자는 백토 위에 청화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백자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환원번조還元燔造한 것을 말합니다. 청화 안료는 굽기 전에는 검게 보이다가 불에 닿은 후 비로소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게 되는데, 원산지는 저 멀리 중동의 페르시아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중국을 통해 페르시아산 코발트를 들여왔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값을 치러야했습니다. 따라서 청화백자는 매우 귀했으며 청화 안료를 가지고 문양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도화서 화원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백자는 그 시작부터 왕실의 어기御器를 전담했던 분원分院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또한 오직 왕과 왕실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림 1. 다양한 조선후기 청화백자

수요가 점차 확대되자 법으로 청화백자의 사용을 금하기도 하였지만 조선후기가 되면서 청화 안료 조달이 용이해지고 부를 축적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청화백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방구류나 향합, 화장용구, 상형 기물 등 수요자 층의 기호에 따라 백자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



다. 더불어 장식기법도 한층 다채롭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릇의 표면을 불룩하게 표현하는 양각은 물론이고 양각한 후 구멍을 뚫어내는 투각기법을 혼용하기도 하고 푸른색의 청화, 붉은색의 동화 안료를 함께 사용하며 그릇 전체를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양의 소재 또한 훨씬 폭넓어졌습니다. 부를 상징하는 모란이 기면 중심을 차지하기도 하고, 복숭아나 석류, 밤 등 복과 자손번창을 뜻하는 과일들도 자주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만수무강萬壽無疆’ 글자를 그려 넣기도 하는 등 길상무늬가 활발히 시문되었습니다. 여백과 절제의미를 보여줬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다양한 수요층의 기호가 반영된 새로운 미감의 백자들이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박진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아스틀란(하얀 땅) 출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예언으로 고향을 떠나 200년 가까이 유랑하던 중 부족의 이름을 메시카로 바꾼 후 14세기 무렵 멕시코 중앙고원 속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문명과 비슷하게 아스테카 역시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은 신들의 희생 덕분에 세상과 태양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생각한 점입니다. 인간이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스테카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카족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호수 주변의 테스코코, 트라코판과 삼각동맹을 이루어 주변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제의 방식은 전쟁과 공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스테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는 아스테카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우주, 자연 환경, 아스테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신성구역 그리고 대신전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스테카의 잔혹한 이미지가 다분히 기독교적 정복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전시는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례 이면에 있는 아스테카 사회의 작동원리와 세계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람객 개개인이 이 전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1. 인간의 창조자이자 지혜와 새벽의 신 케찰코아틀(깃털달린 뱀, 두 번째 태양)



그림2. 움직임의 태양 토나티우(다섯 번째 태양)



그림3.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4. 젊은 옥수수 신 실로넨

상형 토기 다시 보기

이상미, 108호 신라실, 19:00~19:30

상형 토기는 모양을 본떠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일상의 실물을 모방하였지만 속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어있습니다. 흙으로는 원하는 모양을 쉽게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형 토기는 주로 3세기부터 5세경까지 낙동강 유역인 가야와 신라지역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삼한시기부터 만들어진 새 모양 토기는 주로 규모가 큰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상형 토기 중 가장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 모양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1. 새 모양 토기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기록에 “변·진한에서는 큰 새의 깃을 장송에 썼고, 그 뜻은 죽은 자로 하여금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새를 숭배하는 풍습에 대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토기 뿐 만 아니라 새 무늬를 새긴 청동기를 사용한 사례도 여러 지역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용도의 새 모양 기물들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매개자로 보는 조령신앙의 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2. 말 탄 사람 토기 X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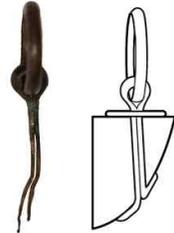
경주 금령총에서는 말 탄 사람 토기 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X선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사진은 이 토기가 주전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토기 2점은 주인과 하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인물의 옷과 말갯춤이 차이가 있고, 시종이 손에 방울을 들고 저승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는 신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말 장식에 대한 또 다른 자료로 당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형 토기는 역사의 또 다른 기록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서화의 전통재료

장연희, 202-4·5호 서화II실, 19:00~19:30

1. 고리(環)

- 족자에 끈이나 유소를 고정시켜 걸 수 있도록 만든 부속품으로 상축 양 끝으로부터 약 1/4지점 1개씩, 1쌍을 이루어 걸구되어 있습니다.



2. 축목(軸木)

- 족자: 장황 비단의 상·하단에 부착하는 나무 축입니다(상축목, 하축목).
- 두루마리: 장황비단의 양쪽 끝에 부착하는 나무 축입니다(상변축, 하원축).



3. 축두(軸頭)

- 축목 양 끝부분에 걸구되어 있는 나무 장식입니다.



4. 유소(流蘇)

- 족자를 걸어서 감상하기 위해 고리에 장착하는 끈입니다.

